

보도시점 2026.8.18.(화) 11:00
< 8.19.(수) 조간 >

배포

2026.8.18.(화)

한국 진출 브라질 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 브라질 기업과의 밀착 소통을 통한 양국 간 교역 확대 방안 모색 -
- 정상 순방 후속조치 본격화, 對 한국 투자 및 진출 확대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8.18일(화) 한국에 既 진출한 브라질기업 9개사* 및 주한브라질대사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말 우리 정상의 브라질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브라질 기업들의 한국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對한국 투자·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ApisBrasil(프로폴리스 생산업체), Seara(육류 가공 업체), MBRF(육류 가공 업체), Embraer(항공기 관련 업체), Milhao(옥수수 가공 업체), Paplona(육류 가공 업체), Oakberry Korea(아사이볼 제조 업체), ADL Korea(광물·자원 전문 기업), The Coffee(카페)

브라질은 남미 제1의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으로서, 금년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방한 및 7월 우리 정상의 답방을 통해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브라질과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 마련, 핵심광물 및 산업기술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식품, 항공, 광물 등의 분야에서 한국 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을 요청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한국과 브라질의 최근 2차례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어, 이 기회를 통해 양국 기업들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고위급 회담 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향후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과의 소통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팀장	이동섭 (044-203-5630)
	중남미대양주통상팀	담당자	주무관	이명동 (044-203-5633)